

국별 리포트

엘살바도르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1. 4.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6
IV. 국제신인도	9
V. 종합 의견	12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I. 일반개황

면적	21천km ²	G D P	215 억 달러(2010년)
인구	6.19 백만명(2010년)	1 인 당 GDP	3,480 달러(2010년)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Colon(C)
대외정책	경제실리외교	환율(달러당)	8.75(2010년 말)

- 엘살바도르는 과테말라, 온두라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미의 소국으로, 면적 2.1만 km²(한반도의 1/10), 인구 약 6백만 명, 1인당 GDP 3,480 달러(2010년)인 하위중소득국임.
-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전형적인 소국개방형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마길라(보세가공업) 제품 및 커피, 설탕 등의 농수산물을 주로 미국 및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등의 중미국가들에 수출하고 있음.
- 1992년 1월 평화협정 체결로 13년 간에 걸친 내전이 종식되었으며, 평화협정의 순조로운 이행을 통해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지속하고 있음.
- 2001년 달러공용화정책 실시 이후 이자율 하락, 물가안정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수출경쟁력 약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e	2011 ^f
경제성장률	4.2	2.4	-3.6	0.8	2.1
재정수지/GDP	-1.9	-3.1	-5.6	-4.7	-3.5
소비자물가상승률	4.6	7.3	0.6	0.9	4.3

자료: IMF, EIU

□ 저조한 경제성장세 지속

- 면적이 약 2만km²(한반도의1/10), 인구가 약 6백만 명에 불과한 엘살바도르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전형적인 소국개방형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어, 미국 경기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음.
- DR-CAFTA* 발효에 따른 수출 증가, 해외송금 증가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 2005년 말에 발생한 태풍 및 화산폭발 피해복구 공사에 따른 건설업 호조 등에 힘입어 2006년~07년에 각각 5.3%, 4.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

*DR-CAFTA(Dominican Republic-Central America Free-Trade Agreement)
:미국,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도미니카 공화국 간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 2008년 하반기에 발생한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수출 급감, 미국 거주 해외근로자송금 감소에 따른 소비 감소, 투자 위축으로 동국 경제가 급속히 위축되어 2009년에 마이너스 성장률(-3.6%)을 기록하였음.
- 동국 정부의 경기부양책 실시와 미국 경제의 회복세 전환에 힘입어 2010년 들어 내수와 수출이 동반 회복세를 보였으나, 하반기 이후 미국의 경기 회복 속도 지연으로 성장세가 둔화되어 2010년 전체로는 0.8%의 저조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 물가상승률은 안정세 유지

- 2001년 달러공용화(Dollarization) 시행으로 저물가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 2004년~07년에는 농산물 가격상승과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은 4.0~4.7%의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음.
- 2008년에는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물가상승률이 7.3%까지 상승하였으나, 2009년 이후 국제원자재 가격이 안정세를 회복하면서 2009년~10년에 각각 0.6%, 0.9%의 낮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음.

□ 긴축정책으로 재정적자 소폭 감소

- 2005년10월에 발생한 태풍 스탠(Stan)과 일라마테펙(ilamatepec) 화산 폭발로 인한 피해복구사업 실시로 재정 지출이 증가하면서 2006~07년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GDP의 2~3%대를 기록하였음.
- 2008년에는 전임 사카(Antonio Saca) 정권의 긴축정책 기조 유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를 위한 재정지출 증가세 지속으로 재정적자 규모가 GDP의 3.1%로 증가하였음.
- 2009년에는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정부의 경기부양책 실시로 재정적자 규모가 GDP의 5.6%로 확대되었음. 동국 정부는 2010년 3월에 IMF로부터 8억 달러 규모의 36개월 만기 대기성 차관을 차입하면서 재정적자 규모를 GDP의 4.8% 이내로 유지시킬 것을 권고 받았으며, 긴축재정 정책 실시 및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 등에 힘입어 IMF와 합의한 재정적자 목표(GDP의 4.7%)를 달성하였음.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높은 대미 경제 의존 지속

- 대미 의존도가 낮아지고는 있으나, 엘살바도르 총수출의 43.9%, 총수입의 29.8% 정도를 차지하는 등 여전히 대미 의존도가 높은 상황임. 따라서

미국 경제가 침체되면 엘살바도르 경제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등 미국과의 동조화 현상이 심함.

- 이에 대한 대응으로 엘살바도르 정부는 2007년에 대만과 FTA를 체결하고, EU-중미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등 적극적인 시장다변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미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조기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 달러공용화로 인해 수출경쟁력 약화 우려

- 엘살바도르는 2001년 1월부터 미달러를 자국통화(C8.75:US\$1)와 함께 법정통화로 사용하는 달러공용화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이로 인해 만성 인플레이션 극복, 금리 하락에 따른 기업투자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으나, 달러공용화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긴축재정을 시행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으며, 변동환율제도를 도입한 타 중미국가 대비 수출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나. 성장 잠재력

□ 무역특혜조치에 힘입어 선진국 시장접근에 유리

- 미국의 무역특혜조치(DR-CAFTA)로 인해 미국시장 접근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보세가공무역업인 마킬라 산업이 발달 하였고, 이 분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이 증가하여 엘살바도르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친시장 경제정책 적극 추진

- 내전종식 후 외국인투자유치 및 수출장려를 위해 외국인투자보장촉진법, 수출활성화법, 자유무역지대 및 보세지역관리법 등을 제정하여 적극적인 외국인투자유치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다. 정책성과

□ 달러공용화제도 정착으로 물가, 금리 등 거시경제지표 안정

- 달러공용화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는 긍정적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 14%에 달하던 대출금리가 달러공용화제도 도입 이후 6~7%대로 낮아져 기업의 투자 활동이 활성화되었으며, 물가상승률도 5% 이하로 안정되었음.

3. 대외경제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e	2011 ^f
경 상 수 지	-1,183	-1,596	-373	-977	-1,550
경 상 수 지 / GDP	-5.9	-7.2	-1.8	-4.5	-6.8
상 품 수 지	-4,105	-4,393	-2,845	-3,688	-4,043
수 출	4,039	4,611	3,861	4,478	5,499
수 입	8,144	9,004	6,706	8,166	9,542
외 환 보 유 액	2,071	2,405	2,612	2,317	2,935
총 외 채 잔 액	9,513	10,110	10,653	11,035	11,863
총 외 채 잔 액 / GDP	47.2	45.7	50.5	51.3	51.8
D. S. R.	18.1	15.8	10.2	10.0	14.5

자료: IFS, EIU

□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 지속

- 마길라(보세가공업) 제품 및 커피, 설탕 등의 농산물을 주로 미국 및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등의 중미국가들에 수출하고 있음. 특히, 해외근로자송금은 GDP의 16~17%를 차지하는 등 동국 경제의 중요한 외화소득원임.

* 제품별 수출비중(2009년) : 마길라 제품 39.2%, 커피 6.1%, 설탕 2.3% 등
 국가별 수출비중(2009년) : 미국 43.9%, 과테말라 13.9%, 온두라스 13.2%, 니카라과 5.7% 등

- 2009년에는 경기침체에 따른 수입액 감소로 상품수지 적자가 대폭 감소하였으나 2010년에는 주요 수출품의 국제시세 호조에 따른 수출증가에도 불구하고, 해외 근로자송금 유입에 힘입은 소비재 수입 증가, 고유가에 따른 석유수입액 증가 등으로 인해 상품수지 적자규모가 37억 달러로 증가하였음.
- 특히, DR-CAFTA 발효(2006년 3월)로 중국 뿐만 아니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등 중미 국가들과의 섬유수출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투자 확대를 위한 자본재 수입 증가로 상품수지 적자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 경상수지 적자 규모 확대 추세

- 동국은 대규모 상품수지 적자를 경상이전수지 흑자로 보전해왔음. 연간 30억~40억 달러대의 해외근로자송금으로 무역적자를 보전하고 있으나, 외채원리금 증가로 인한 소득수지 적자 확대, 운송비 지급 증가로 인한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증가하고 있음.
- 2010년에도 해외근로자 송금액이 37억 달러를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수지 적자규모 확대로 인해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GDP의 4.5%인 9.7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Ⅲ. 정치 · 사회동향

1. 정치동향

□ 내전종식 이후 정국안정 유지

- 1981년부터 지속되었던 좌익 게릴라(FMLN)와의 내전이 1992년에 UN의 중재로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13년 만에 종식되었고, FMLN이 제도권 정치 세력으로 진입함에 따라 대체로 정국이 안정을 되찾았음.
- 1989년 이래 집권하여 온 우익 성향의 국민공화연합(ARENA) 당이 20년 동안 장기 집권하면서 친시장주의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였음.

□ 푸네스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20년만의 정권 교체

- 2009년 3월 실시된 대통령 선거(임기 5년)에서 민족해방전선(FMLN) 후보인 푸네스(Carlos Mauricio Funes)의 당선으로 20년 만의 정권 교체를 달성하면서 최초의 좌익 정부가 출범하였음.
- 푸네스 대통령은 유명한 전직 뉴스앵커 출신으로 대통령 당선 후에도 70%대의 높은 지지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실용주의 노선으로 전 정권의 친시장적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민족해방전선의 극좌파 세력과 갈등을 빚고 있음.

□ 친여정당과의 연합으로 정국안정 유지

- 2009년 1월 총선에서 민족해방전선(FMLN)은 총 84석 중에서 35석으로 최다 의석을 차지하였으며, 국민공화연합(ARENA)은 32석, 국민화합당(PCN)과 기독교민주당(PDC)이 각각 10석과 6석을 차지하였음.
- 집권여당인 FMLN은 친여 성향의 PCN, PDC와 연합하여 전체 의석수가 총 의석수의 과반수를 9석 상회하는 51석을 차지하고 있음.
- 그러나 2/3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민영화, 자유무역협정, 외채문제 등에 대해서 제1야당인 국민공화연합(ARENA,32석)과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 정부의 경제개혁 정책 추진이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음.

2. 사회동향

□ 치안불안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나 내전재발 가능성은 낮음

- 과거 오랜 내전으로 다량의 총기가 사회에 유포되어 전투원 출신중 사회적응에 실패한 민간인과 빈민들에 의한 강력범죄가 빈발하고 있음.
- UN에 따르면, 엘살바도르는 콜롬비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살인 사건 발생률이 높은 국가로서 인구 10만 명당 56명의 비율로 살인이 발생하고 있으며, 기타 강도, 납치, 은행강도 등이 증가하여 국내 치안이 불안한 상황임.

- 특히, 내전 당시 미국으로 이민한 엘살바도르인들의 조직폭력 단체인 마라스(maras)가 엘살바도르로 유입되어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를 자행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현재 마라스 조직원수는 약1만 2,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됨.
- 그러나 평화협정의 성공적인 이행으로 전국적인 내전재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3. 국제관계

□ 미국 및 주변국과는 우호적 관계 유지

- 엘살바도르는 전통적으로 미국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중미국가로는 유일하게 2003년부터 이라크에 군대를 파병, 남부 와시트 지구에서 인도 주의 임무를 수행해왔으며, 파병기간 중 이라크 반미세력의 공격을 받아 20명 이상 사망하였음. 엘살바도르는 초기 380명 규모였던 파병 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여 2009년 2월에 완전히 철군하였음.
- 엘살바도르의 이라크 파병으로, 미국정부는 미국 거주 엘살바도르인에게 2001년 대지진 발생 당시 임시적으로 부여하기로 했던 임시보호지위 (Temporary Protection Status:TPS)를 2010년 9월까지 연장하여 약 23만 명의 엘살바도르인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역내 지역통합 가속화 전망

- 중미 4개국간 인적, 물적이동 자유화 정책 실시 및 DR-CAFTA 발효에 따라 역내 경제통합이 한층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2010년 체결된 EU-중미간 FTA가 발효될 경우 수출시장다변화와 대 EU 수출 증가가 기대됨.

IV. 국제신인도

1. 국제시장평가

□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현황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기관명	2009	2010
한국수출입은행	C2(positive)	C3
OECD	4등급	4등급
S&P	BB	BB-
Moody's	Ba1	Ba1
Fitch	BB	BB

□ 최근 주요 신용평가기관의 등급 하락

- 엘살바도르는 양호한 경제성장과 외채상환태도로 2009년 9월까지 Moody's로부터 투자적격등급인 Baa3 등급을 부여받았으나, 동국이 2009년에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2009년 11월에 동국의 등급을 Ba1으로 한 단계 하락시킴.
- 한편, S&P도 동국의 저조한 경제성장세를 반영하여 2011년 1월에 기존 BB 등급에서 BB- 등급으로 동국의 등급을 한 단계 하락시켰음.

□ 국제자금조달 원활

- 국제금융시장에서 어려움 없이 채권을 발행하고 있음. 2011년 1월에 6.5억 달러의 글로벌 본드를 비교적 양호한 조건(수익률 7.625%, 30년 만기)으로 발행하는 등 국제자금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음.
- 지난 1995년 IMF로부터 SDR37.68백만의 대기성차관(Stand-byLoan)을 도입한 이후 1997년 2월과 1998년 9월 추가로 대기성 차관에 합의하였으나 자금인출은 하지 않았음.

- 2009년 1월 선거를 앞두고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신용경색에 대응하여 외환위기 예방 차원에서 IMF로부터 8억 달러 규모의 36개월 만기 대기성 차관을 도입하였으며, 2010년 3월 신정부가 동 IMF 대기성 차관 계약을 갱신하였음.

2. 외채 상환 태도

□ 외채위기 경험국이나 외채상환태도 양호

- 동국은 1990년 9월 파리클럽과 156백만 달러의 채무리스크줄링 협상을 타결하였고 1993년에는 미국으로부터 450백만 달러의 채무감면을 받은 바 있음.
- 그러나 이후 외채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외채상환태도는 양호함.

3. 주요 ECA 인수 태도

- 미국 EXIM: 최고부보율 적용
- 영국 ECGD: 최고부보율 적용
- 독일 Hermes: 단기전액 인수가능

4.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62/08/30 (북한과의 수교 : 미수교)

□ 주요협정: 문화협정('70), 무역협정('70), 사증면제협정('96), 투자보장협정('98)

□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표 5>

한·아르헨티나 교역 규모

단위 : 천 달러

	2008	2009	2010	주요품목
수 출	66,604	40,765	61,405	자동차, 전자제품, 섬유
수 입	6,913	4,224	20,299	커피, 설탕, 의류
합 계	73,517	44,989	81,704	

자료: 한국무역협회

- 해외직접투자현황(2010년 12월 누계, 총투자 기준) : 14건, 43,538천달러

V. 종합 의견

- 엘살바도르는 2006년에 DR-CAFTA가 발효되면서 GDP의 20%,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마킬라산업이 호조세를 보이며 2008년까지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음. 그러나 대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경제구조로 인해 2009년에는 미국의 경기침체로 동반 침체를 보이면서 마이너스 성장률(-3.6%)을 기록하였고, 2010년에는 미국의 경제회복 속도 둔화로 중미국가 중에서도 낮은 성장률인 0.8%를 기록하였음.
- 특히, 미국 수출시장에서 중국 및 기타 중미국가들과의 경쟁 격화, 달러 공용화제도로 인한 대미가격경쟁력 저하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 고유가로 인한 석유수입액 급증으로 만성적인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함.
- 또한, 달러공용화제도 시행으로 인해 외부충격을 흡수할 기제가 사라진 상황에서 재정건전화는 경제안정의 필수조건인데도 불구하고, 낮은 경제 성장률에 따른 세수 기반 부족, 교육, 보건, 연금 등 사회복지 부문 지출 압력, 태풍 및 산사태 등 잦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비용으로 인해 재정 기반이 취약한 상황임.
- 현재까지 해외근로자송금 및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세 지속, 다자기구의 양허성 차관 도입으로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적자를 보전하고 있는 상황임.
- 다만, 엘살바도르는 중미국가들 중에서도 비교적 정치적으로 안정된 국가에 속하며 현 푸네스(Funes) 대통령의 높은 지지도에 힘입어 정국 안정세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한편, 달러공용화제도를 바탕으로 물가·금리수준 등 거시경제지표가 안정세를 보이고 건전한 거시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 회복에 기여하고 있음.
-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엘살바도르의 신용등급을 종전의 C2보다 한 단계 하락한 C3 등급으로 조정코자 함.

문의 : 책임조사역 이기수(☎3779-5719)

E-mail : real-ksl@koreaexim.go.kr